

원희룡 장관, “모듈러 공법 확산을 통한 건설산업 혁신, 산업 활성화와 해외수주 지원 적극 추진”

- 27일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 준공식 참석... 업계 소통간담회 개최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7일(화) 오후, 국토교통부 연구개발(R&D) 실증사업으로 추진된 국내 최고층(13층) 모듈러주택 준공식에 참석하여 새싹기업(스타트업)과 시공사 관계자 등*을 만나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내 모듈러 산업 활성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.

* 스타트업(스페이스웨이비, 텐일레브, 엠쓰리시스템즈), 시공사(현대엔지니어링, 삼성물산, GS건설), 소재사(포스코), 제작사(유창이앤씨), 건설기술연구원, 건축학회, 스마트모듈러포럼

○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, 공사기간 단축, 시공품질 향상, 안전사고 저감 등의 장점이 있어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건축물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.

○ 준공 현장은 구조안전성과 내화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한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으로서 경기주택도시공사(GH)가 총 106세대의 공공 임대주택(행복주택)으로 건설하였으며, 업계에서는 향후 초고층 모듈러 주택 건설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.

□ 원 장관은 준공식 기념사에서 “모듈러 공법은 건설업의 제조업화를 통해 기존 건설산업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기술”이며, “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대규모 발주가 예정되어 있어 해외수주 가능성도 높은 시장”이라며 모듈러 공법 확산과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.

○ 이어, “정부도 산업 육성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여 국내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, 해외시장 개척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”며 모듈러 업계 지원 의지를 밝혔다.

□ 원 장관은 이어 모듈러주택 새싹기업과 시공사 등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업계의 시각으로 본 국내·외 모듈러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, 이를 통한 업계 지원방안 및 산업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.

○ 업계는 기존 건설산업에 맞추어진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고, 특히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및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발주 확대와 금융지원 강화 등 적극적인 해외수주 지원을 요청하였다.

- 특히, 모듈러 단독주택이나 학교 등 소규모(2~3층) 건축물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새싹기업(스타트업)들은 **규제 완화, 인센티브 제공** 등과 더불어 사업 초기 원활한 **시장 안착**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요청하였다.
- 원 장관은 “건설 분야는 초기 투자비와 인건비가 커 다른 산업보다 새싹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어렵다”면서, “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여 중소 건설업계의 **모듈러 시장 진입장벽을 낮출**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”라고 말했다.
- 아울러,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해 “원팀코리아 수주지원 활동을 통해 **정보교류** 및 주요 수주국과의 **협력을 강화**하고 있다”라며, “금융지원 등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**조속히 협의**하겠다”라고 답변하였다.
- 마지막으로, “**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***가 주관이 되어 산·학·연·관 간에 긴밀한 **협력관계**를 이어나가고, 모듈러 산업 활성화와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**제도개선**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”라고 덧붙였다.

* 국토부 외 5개 기관(내, 건기연, 철강협회, 건축학회, 스마트모듈러포럼)이 참여하여 '22.11월 출범

2023. 6. 27.

국토교통부 대변인